

인빠지기·휘감기·찌르기 ‘전법’ 알면 경정이 보인다

수면 위의 격투기라고 불리는 경정에서 ‘전법’은 필수 승리 요소다.

경정 선수들이 구사하는 전법 중 첫 번째는 인빠지기다. 유일하게 1코스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다시 인빠지기와 인돌기로 세분할 수 있다. 인빠지기는 경정 전법의 기본으로 1코스에 배정받는 선수가 1턴 마크를 제일 먼저 선회해 그대로 선두를 유지하는 전법이다.

두 번째는 휘감기다. 2코스부터 6코스까지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며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성향이 강한 전술이다.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받쳐줘야 가능한 전법이다. 안쪽에 위치한 경쟁상태 오른쪽을 시속을 줄이지 않고 강하게 돌아나가 선두 자리를 노리는 기술이다. 작전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초동 이후 빠르게 공격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세 번째는 가장 난도가 높은 휘감아찌르기다. 두 가지 기술을 한 번에 구사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구사하면 백스트래치에서 내선을 잡을 수 있다. 1주 2턴 마크에서 선두를 꺾을 수 있지만 상대의 타이밍을 읽지 못할 경우는 진로가 막혀 낭패를 볼 수 있어 넓은 시야와 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찌르기는 스타트 시 왼쪽 선수와 가속력이 비슷해 휘감기로 누르지 못할 경우에 시속을 줄이고 공간을 파고드는 기술이다. 상대 압박에 실패해 선택하는 경우와 미리 역습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예상분석 전문가는 “출전 선수들의 전법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갖췄는지와 당회차 지정훈련 시 스타트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22@donga.com

경륜·경정 도박중독 예방 공동캠페인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사업 건전화와 과몰입 예방을 위해 7월29일과 30일 천안지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 경주사업총괄본부 희망길벗 소속 전문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자가진단테스트와 1:1 현장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과몰입 예방과 중독치유 활동을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진행되는 캠페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업을 도박문제뿐 아니라 개인 신용 및 채무조정 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편필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6~8일 특별대상경륜부터 오픈하는 ‘스피드 온’ 이용 가이드

경주당 5만원 제한...가상계좌 이용시 수수료

하나은행 등록시 수수료 없이 충전
매경주 순위 확정시 녹화영상 공개
중복로그인 제한 등 보안기술 강화

온라인 구매가 허용된 경륜이 이를 기념하는 특별 대상경륜을 진행한다.

대상경주는 경륜의 각종 레이스 중에서 의미나 상금 규모가 특별한 경주지만, 이번 6일부터 8일까지 시행하는 특별대상경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바로 경륜 팬의 오랜 숙원인 온라인 경주권 구매가 이번 특별경주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정의 경주권 온라인 구매가 11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6일 개막하는 특별대상경주는 실질적인 온라인 구매의 첫 시행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륜이 경정의 경주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오랫동안 현장서 레이스를 지켜보지 못한 팬들은 이번 대상

경주를 모두 기다리고 있다.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 빠른 온라인 가입이 필요하다.

그럼 온라인으로 경주권을 구매하기 위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륜·경정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앱 ‘스피드 온’(Speed-On)을 내려 받아 설치해야 한다. 이후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PC에서는 6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에 그린카드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그린카드 앱을 지우고 새로운 스피드온 앱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입절차를 마치면 경륜 뿐 아니라 경정경주에 대한 경주권 구매가 한 경주 당 5만원까지 가능하다.

●임채빈·정종진 첫 격돌 관심 집중

은행계좌 등록과정에서 거래 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선택하여 등록하면 스피드온에서 간단하게 예치금의 충전과 인출이 가능하다. 그 외 은행들은 인출계좌 등록 후 가상계좌(하나은행, 기업은



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입금 시 일정부 분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본인부담으로 수수료가 차감되어 예치금으로 충전된다. 가상계좌 입금 외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주영상은 매 경주가 종료되면 순위

를 확정 후 바로 녹화영상을 공개한다. 이는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발매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카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강화하여 구축하였다. 청소년 접근 차단 등을 위한 실명제, 본인기기만 사용가능한 1인 1기기 사용제한, 중복로그인 방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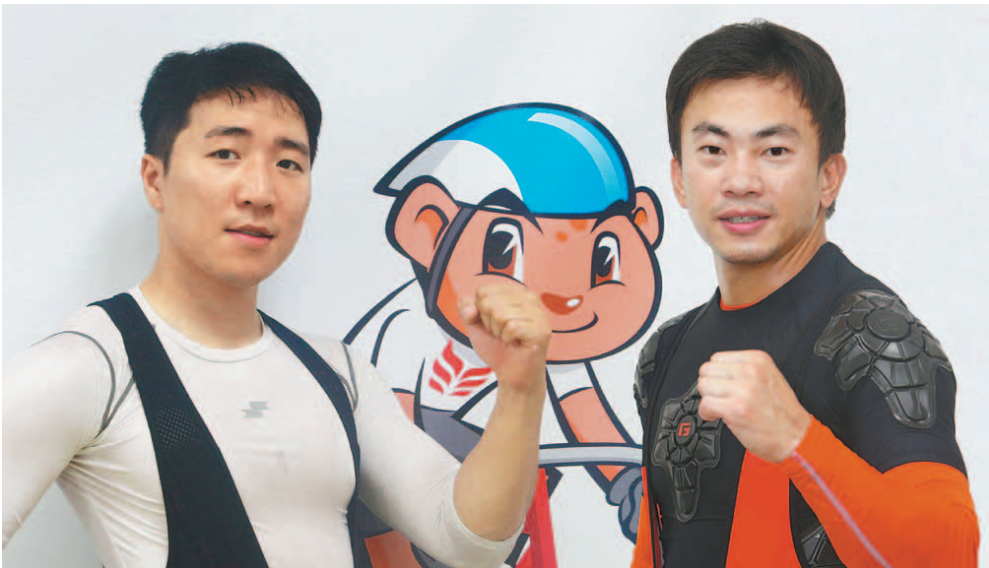
의미가 남다르다 보니 이번 특별대상 경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종진과 임채빈에 집중한다.

정종진과 임채빈은 지금까지 경주에서 단 한 번도 격돌한 적이 없다. 하지만 2024년 올림픽 출전을 위해 모인 KSPO 경륜 트랙팀의 팀원으로서 6월 3주간 합숙훈련을 해 서로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의미 깊은 이번 특별대상 경주의 우승 트로피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임채빈 vs 정종진’...빅매치 가능성에 특별대상경륜 후끈

“임채빈 선행·정종진 추입에 강해”



과몰신인 임채빈 선수(왼쪽)와 경륜황제 정종진 선수가 맞대결한다면 누가 이길까? 경륜 전문가는 임채빈은 선행, 정종진은 추입으로 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황제’ 정종진과 ‘괴물’ 임채빈의 대결이 6일 시작하는 온라인 발매 스피드 온(SPEED-ON) 론칭 기념 특별대상경륜 결승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둘의 대결을 앞두고 예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기록을 분석해 경주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순발력, 마지막 스피트를 평가하는 200m와 한 바퀴 지구력, 파워를 평가하는 333m 기록이다. 정종진의 200m 경주별 최고기록은 7월4일 광명특선결승에서 세운 10초44이고, 개인별 최고기록은 10초 41이다. 한 바퀴 지구력을 평가하는 333m 경주별 최고기록은 17초76이다. 반면 임채빈의 200m 경주별 최고기록은 7월16일 광명에서 세운 10초61이고 개인별 최고 기록은 10초 55, 333m 경주별 최고 기록은 17초 55다. 상대적 비교를 하자면 정종진이 추입과 찌하기에서 앞 설 수 있으나 임채빈은 선행에서 앞서고 있다.

구간별 시속에서 정종진과 임채빈은 초반 스타트를 나타내는 흠부터 100m 구간

에서 각각 시속 67km, 69km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스피트의 4코너부터 결승선 구간에서는 선행이 각각 시속 63km와 66km, 찌하기가 각각 시속 65km와 68km, 추입은 각각 시속 67km, 64km를 기록했

다. 정종진이 추입이 우세한 반면 임채빈은 초반 스타트와 선행, 찌하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어배수는 정종진은 4월까지 3.92를 쓰면서 짧은 추입, 찌하기 전법

에 임했다가 7월부터 임채빈의 맞춤 격인 3.93으로 올려 선행, 찌하기 전법에 의한 자력승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임채빈은 3.93을 쓰면서 선행 연습 속에 7월 차체 교체하고도 7월16일 찌하기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경륜 전문가는 “데이터를 보면 정종진은 추입, 임채빈은 선행으로 임해야 서로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라며 “변수는 수적 열세에 놓인 임채빈의 선행을 정종진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초반 얼마나 견제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대상경주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정종진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후회 없도록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을 고객들께 보여 드리겠다”며 임채빈에 대해서는 “전에 없던 기량이 우수한 신인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임채빈은 “경륜 입문 후 첫 대상경주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모든 SS급을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농약

한스농장 파워센 충전식 자동분무기

KC품질안전제품

한번충전으로 8시간 살포할수 있음



분무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간편하게 분무대만으로
작업 가능한
새로운 제품입니다

호수길이 40M 사용
100M 살포가능

물러릴(줄감는거) 별도구매

아직도 무거운 분무기를 메고 작업하십니까?

- ▶호수길이 40m 사용 100m까지 살포가능
- ▶노년층과 여성분 사용적합
- ▶A/S 보증기간 1년

공
진
총

장
영
판

010-2471-8245
070-8623-8245

라이트크기 초소형 녹음기

데워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탄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정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트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주입문:080-232-5866)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탄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발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지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무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형) 보급형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흡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草)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쏙 굽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액기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라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땀,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고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모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발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은 자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걸쳐서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형성,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며 화장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